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. 11. 14.(목)

재외동포청, 대규모 정전사태 피해 입은 쿠바 한글학교 지원

- ‘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’ 제정 후 첫 사례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쿠바 한글학교에 발전기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.
- 쿠바 수도 아바나에 위치한 쿠바한글학교는 최근 장기간 계속되는 정전으로 인해 동포들이 음식물 냉장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빗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호소하며, 동포사회의 비상대피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‘쿠바 한글학교 겸 한국문화센터’에 발전기 지원을 요청해 왔다.
- 쿠바는 노후된 화력 발전소 고장으로 지난 10월 18일 전국적인 정전이 시작된 이후, 허리케인 ‘오스카’와 ‘라파엘’에 이어 11월 10일 진도 6.8의 지진까지 겹치는 등 피해가 심각했으며, 현지 정부의 복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전사태가 지속되고 있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지난 3월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사회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‘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’을 제정했다.
- 해당 지침은 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가 피해 극복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이상덕 청장은 “위난동포 지원 지침 제정 후, 역사적 특수성을 안고 있는 쿠바지역 동포사회를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”며 “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 ☐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정선호	032-585-3172
		담당자	주무관	이건호	032-585-3176